

TAEYANG

2022

NEW YEAR



태양가족

METAL



since 1954

창업주의 가르침

첫째, 기업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앞으로 전진 하지 않고
정지상태면 넘어지는 법.
둘째, 생각을 할 줄 아는
백성이라야 잘 살수 있다.
셋째, 온전한 마음의 자세를 갖자.

『1977. 1. 4. 시무식에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 하였고
공자는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故 한은영 명예회장님께서서는 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변화와 혁신을 말씀하시며 우리 태양금속과 태양가족 모두가
건전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고 도전적인 자세로 앞으로 전진하길 당부하셨습니다.

CONTENTS

04 명예회장님 발자취
한애삼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며...

08 창립 제68주년 기념사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마음으로

12 CEO FOCUS
태양금속공업(주), 아시아 업계 최초로 GM SOY 3회 수상

13 언론에 비친 태양
태양금속공업(주), LG엔솔 · 테슬라에 부품 공급

14 태양뉴스
창립 68주년 맞아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외

16 해외법인 및 계열사 소식
프라이맥스, 2021년 연매출 1,000억원 돌파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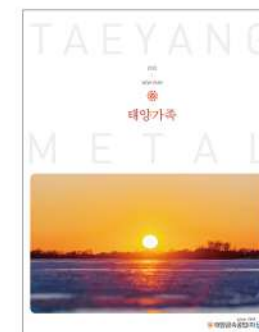
20 기획특집①
E-GMP에 대해서 알아보자

24 기획특집②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자!

26 협력업체 탐방
(주)구봉에스테크 · 구봉정공 김준호 대표

28 신입사원소개
우리회사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30 사우동정
입사 및 인사발령, 승진



태양금속공업(주) '태양가족' 사보

발행일 2022년 3월 10일

발행인 한우삼

발행처 태양금속공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031) 490 5586

편집위원 박원근, 이일두, 강문호, 배인승, 이준영
변관홍, 이승준, 이승주, 강승구, 홍승관, 한승훈
www.taeyangmetal.com

디자인 큰하늘 031) 402 0876
gsky21@hanmail.net

한애삼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며...

1950년 6.25전쟁 후 국가 재건사업이 시작되던 즈음 故 한은영 명예회장께서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해 1954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205번지에서 자전거 핵심 부품인 스포크와 닛플과 강구제작을 필두로 자전거거림 등 다수의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는 '태양자전거기업사'를 창립하셨다.

금년에 창업 68주년을 맞이하는 태양금속의 장수비결은 회사 창업부터 이어져온 '한솔밥 기업문화'로 창업주께서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태양 가족'에 큰 의미가 있고, 한애삼 명예회장에 이어 한우삼 회장께서 명문 장수기업으로 계승 발전 시켜왔다.



1954년 태양자전거기업사 전경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60년대 초반 자동차부품사로 변신의 기틀을 마련한 태양금속은 기계산업의 기초 요소라고 하는 볼트, 너트, 스크류 사업을 시작으로 엔진 및 조향장치부품 등 정밀 가공품까지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창립 68주년 기념 '태양가족' 사보에서는 한애삼 명예회장님께서 기여 하셨던 업적을 기리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한애삼 명예회장께서는 한양대 기계공학 전공 후, 독일 HANOVER 공대 및 CLAUSTAL 공대를 졸업 후 1970년 10월 태양금속에 입사하여 품질, 생산을 거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현대자동차와 부품공급 계약 체결 후 자동차부품 중 수입에 의존하던 실린더 헤드볼트 및 콘로드 볼트 등을 국내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공하였고,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등 자동차 부품 국산화에 큰 업적을 남겼다.

또한 기획실장 근무시 원자재구입 경로를 개척하여 볼트, 너트 개발에 큰 힘을 보탰다. 당시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폐선박을 분해하여 나온 크랭크샤프트 등의 고철을 구입하여 가공, 신선 공정을 통하여 특수강 원자재로 사용하였으며, 수입 원자재보다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특수강 열처리, 표면처리 기술과 설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독점공급체제를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1. 1960년대 태양금속공업(주) 전경 (서울시 서초구 풍납동)
2. 現 태양금속공업(주) 전경 (안산시 반월공단)

3



1980년대 중반 PCB 등 각종 전자회로판에 들어가는 신소재 제품인 전해동박(Copper Foil)을 제조하는 기술 개발하여 일본, 미국 등 해외 다국적기업보다 가격과 품질 경쟁력에 우위를 가지고 있어 동남아 등지에 수출을 하였다.

인재육성을 위해 전국에서 가정형편으로 고교진학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1975년 사내 직업훈련소를 개설하여 초대 소장으로 당시 한애삼 부사장이 임명되어 훈련생들의 기능인 양성에 힘쓰셨고, 1978년 12월 16일에 산업체 부설 태양공업고등학교의 문교부(현 교육부) 설립 인가를 득하여 초대 교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직원들이 주경야독으로 청운의 꿈을 이루어 회사에서 병역특례를 마치고 계속 정진하여 금형, 열처리 등의 자격증 취득으로 우수한 기능인을 배출하여 회사의 기술력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

4



- 3. 1980년 공장새마을경진대회 종합평가 최우수상 대통령표창 수상
- 4. 1979년 태양금속공업 고등학교 수업광경
- 5. 1990년 제20회 정밀도 경진대회 도금 분야금상 수상



68주년을 맞이하는 태양금속의 장수비결은 회사 창업부터 이어져온 '한솔밥 기업문화'

1988년 3월 한애삼 부사장께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되었고, 故 한은영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여 협동하는 '태양금속 조직' 구현을 위해 '신용·신의·실력'의 경영방침을 기본정신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직역량 강화, 설비투자 확대 및 해외 수출 비중 증대 방안을 마련 하였다. 또한 공장 자동화 및 사무관리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2배 이상 올리는 등 성과를 가져왔으며, '88년 올림픽 개최시기에 맞물려 회사 이전을 위해 안산 반월공장을 건설하여 준공하였다.

1991년 8월 당시 한우삼 부사장께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전해동박의 신기술 개발과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애삼 명예회장께서 태양금속 입사 후 자동차부품 국산화 및 1977년 중앙집중식 컴퓨터 환경구축을 통한 전산실 운영 및 반월공장 준공과 사무자동화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등 기여하신 바가 크며, 오늘날 태양금속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창립 68년의 명문 장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5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중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룰 수 있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합시다!

우리 회사 창립 68주년을 기념하여

오늘의 태양금속과 계열사들이 있기까지 열정과 애사심으로 회사에 공헌하고 지켜 오신

모든 태양금속의 선배들과 전 세계 사업장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장기근속 및 각종 포상을 수상한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국내외 경영환경 악조건과 특히 ‘코로나-19’라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팬더믹 상황으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함께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Global company in the world
Taeyang Metal Industrial



태양금속 가족 여러분!

작년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감소와 반도체 수급불균형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수익 감소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2021년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TMC 그룹 전체 매출액은 계획 6천5십억원에 실적 5천6백6십억원으로 93.5% 달성 수치입니다. 안타깝게 매출액 미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필히 매출 목표를 달성해주시길 바라며,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전세계 자동차 생산은 8,270만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은 계속 어렵겠지만 '21년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중심으로 할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상황은 반도체 부족,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요인으로 취약한 재무구조와 아직까지 내연기관 전용제품 매출 의존도가 높은 부품업체가 80% 정도 되기 때문에 미래형 자동차 사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부품사들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형 비즈니스 구조전환과 생산성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

아직도 만연한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것은 창업 이래 계속되어온 우리의 사명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됨에 따라 우리 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의 복잡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과 경쟁업체의 정보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위해 영업과 생산, 기술 및 지원 파트



68th anniversary GOALS!

- 1. 태양금속의 기업가치 향상
- 2. TMC 그룹 매출목표 달성
- 3.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생산 확대
- 4.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등 모든 부문에서 기업 가치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68년간 이어온 우리 회사의 기업문화에 융해되어 대외적으로 고객에 대한 신뢰를 얻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금년 TMC그룹 매출목표를 필히 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매출목표는 국내 본사, 해외법인, 계열사 전체 6천1백5십억원의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68년간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태양가족 여러분의 위기극복 DNA를 믿습니다. 영업부문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제품 RFQ 수주에 전력을 다하여 미래지향적 수익창출과 생산부문에서는 APS시스템을 활용한 계획 생산과 포장 등 설비 자동화 및 공정 개선활동을 통해 설비 효율을 증가시키고 원가절감, LOSS율 감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매출액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생산 확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하드웨어 업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매출액 신장에 한계가 있는 반면, 해외시장 개척은 품질과 기술력만으로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중국법인을 필두로 유럽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법인과 북미시장에서 GM 등 다국적기업에 부품 공급을 위해 디트로이트 및 캔터키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프라이맥스 멕시코 법인에서도 해외시장 공급을 위해 생산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 및 계열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27일 부터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모든 기업체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해도 혼자 숲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에서, 현장 설비에서, 지게차·화물차 운행 중에, 회사내에서 이동 중에, 등등 재해 발생 요인들은 우리들 가까이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 없이는 절대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단어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근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태양가족 여러분!

우리 회사는 6.25 전쟁 후 ‘산업보국’의 기치아래 1954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창업한 이래故 한은영 명예회장님께서 자전거 부품을 시작으로 한애삼명예회장께서 자동차 부품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셨고, 이어서 냉간단조품, 정밀가공 조항장치 제품까지 생산하는 글로벌 명문장수 기업으로 성장·발전하였습니다.

‘68년의 역사속에서 오일쇼크, 홍수, 화재, IMF외환위기, 글로벌 경영위기 등 어려운 시련들을 극복하며 오늘날 발전된 태양금속이 있기까지故 한은영 명예회장의 “한솔밥 기업문화”인 직원 사랑 경영 철학과 선배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창립 68주년을 기념하여 그 숭고함을 기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를 ‘위’ ‘촉’ ‘오’ 로 천하 삼분한 조조, 유비, 손권이 역경을 딛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상황을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집념으로 극복하였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중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룰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그 뜻이 하늘에 통해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념통천’ 집념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금년도 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장기근속 포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신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태양금속(TMC) 그룹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일

회장 **한우삼**





AS 9100 인증 갱신심사 수검

2021년 8월 23일~24일 양일간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 갱신심사가 DNV(Det Norske Veritas) 인증원으로부터 진행됐다. 본 인증은 항공, 우주 분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을 포함한 특화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으로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금번 갱신심사는 고객 계약검토 및 공급자 구매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중점적인 심사가 진행됐다. 당사는 대한항공 한국형 기동헬기인 KUH 수리온에 장착되는 항공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품질경영시스템 내부심사 실시

품질경영팀 주관으로 2021년 10월 19일~20일 양일간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 실행 및 유지,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품질경영시스템 내부심사를 실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내부심사는 절차서 및 표준서 이행여부와 프로세스 성과지표(KPI), 과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측면을 위주로 검증했으며, 차기 품질경영시스템 내부심사는 2022년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라마크와 직원식당 운영 위탁 체결

우리회사는 세계최대 단체급식 전문회사인 아라마크와 협약하고 2021년 11월 1일 부터 직원식당 운영을 위탁했다. 한식과 일품식(양·중·분식 등) 복수의 메뉴 중 선택이 가능해 개인별 입맛과 선호도에 따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후식, 셀프라면, 간편식 등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기념일에 맞춰 특식제공과 잔반 없는날 이벤트 등으로 직원들의 영양과 즐거움을 선사하고있다.

태양금속공업(주), 창립 68주년 맞아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우리회사가 창립 68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새롭게 리뉴얼하며 고객 및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번 리뉴얼된 홈페이지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컨셉을 바탕으로 회사소개, 제품소개, R&D, 인재채용, 고객지원의 카테고리리로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반응형 홈페이지

를 적용함으로써 PC, 모바일, 태블릿 등 어떤 곳에서든지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됐으며, 사내 ERP시스템과 연동하여 RFQ, 방문자예약시스템(차량등록)의 접근성을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www.taeyangmetal.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향부품 가공라인 이관

우리회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현대모비스 창원에 있는 조향부품 가공라인을 자회사인 썬테크에 이관 중에 있다. 2021년 12월 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전기공사 및 기존설비 철거 등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가공라인을 2차례 나눠서 이관예정이다. 현재는 1차 이관을 마친 상태며 올해 3월 양산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조향부품 가공라인 이관시 수주 확대 및 매출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연대법인

연대법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연대시 정부산하 시장감독국이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연대법인에 방문했다. 최근 중국내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증가 추세인 바, 방역관련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국외입국자 및 화물에 대한 방역이 한층 강화되어 연대시 국외입국자의 경우 기존 14일 호텔

격리에서 추가로 14일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화물의 경우 연대항에 도착하는 모든 수입 컨테이너는 1차 소독 후, 컨테이너 개봉시에도 2차로 내부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대법인내 수입화물 업무관련 직원들은 1주일에 2번 이상 핵산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중이다.

중국 장가항법인



IATF 16949 인증 갱신심사 실시

장가항법인은 2021년 하반기 IATF 16949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갱신심사를 실시했다. 본 심사는 IATF16949 규격 요구사항 및 고객 지정 요구사항 충족성과 준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KFAQ(천진) 인증기관에서 심사위원이 방문해 심사를 실시했다. 또한, 본 심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도법인

인도법인, 2022년 시무식 개최



인도법인은 2022년 1월 4일(화)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힘찬 결의와 함께 시무식을 진행했다. 류원열 법인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1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서로에게 격려와 새해 목표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각 팀장은 2021년 실적발표와 함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과 본사의 2022년 경영 방침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었다. 류원열 법인장은 팀장들과 함께 신년 케이크 커팅식을 갖으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길 소망하고, 사업계획 목표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2022년 새해를 맞이했다.



미국 켄터키법인

IWIS社 공정감사 대응



IWIS의 품질 담당자 James Brown이 2021년 11월 30일(화) 켄터키법인에 방문해 공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공정감사는 IWIS의 신규 공급처로 공정능력을 평가받는 자리였으며, 켄터키법인 최병운 법인장과 Mike Johnson은 IWIS James Brown과 함께 생산현장 라인투어를 하면서 각 설비 및 공정흐름에 대한 소개를 했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양사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자리가 됐다.



Simpson지역 상공회의소 책임자 Dennis Griffin과 간담회 가져

켄터키법인에 Simpson지역 상공회의소 책임자 Dennis Griffin이 1월 26일(수) 방문해 최병운 법인장과 채용 및 공장 주변 환경에 대해 논의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본 간담회는 Simpson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켄터키법인을 비롯한 주변 회사의 채용현황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 논의했다. Dennis Griffin은 "많은 정보 공유를 위해 지역 HR담당자 모임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며 HR담당자 모임 참석을 권유했다. 또한, 공장 주변 땅꺼짐 문제에 대해 "환경 담당자와 확인 후 조치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사무소

2021 IAA 모빌리티 전시회 참관



한독 기술협력센터에서 파견 활동을 하고 있는 홍정태 사원이 독일 뮌헨에서 개최한 2021 IAA 모빌리티 전시회에 참관해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파악했다. 본 전시회는 지난 70년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했지만 2021년부터는 뮌헨으로 자리를 옮겨 첫 개최를 했다. 2021 IAA 모빌리티 참관을 통해 미래 기술 동향 및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전시회는 성능, 디자인을 앞세웠던 지난 전시회와는 달리 자율주행, 전기차, 연료전지 등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아 이미 자동차 산업의 격동기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독 기술협력센터 간담회 개최



독일 사무소가 입주해있는 한독 기술협력센터에 허승재 주독 일대사관 총영사, Benjamin Fadavian 헤르초겐라트 시장, 김소연 NRW Invest 한국대표, Thomas Gries 아헨공과대 교수 등 유관 기관 다수의 인사들이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한독기술협력센터 입주기업들의 독일 연구 활동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개최 되었으며, 태양금속공업(주)을 포함한 입주기업들은 각 기업의 소개와 협업 연구 중인 과

제를 소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에 협력을 요청했다. 이후 각 기업 및 기관 담당자들은 자유 미팅 시간을 갖고 서로의 의견 개진과 네트워킹을 형성했다. 허승재 총영사는 “독일은 한국의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라 말하며, 태양금속공업(주)이 이번 기회를 통해 독일 유관 기업들과 원활한 기술 협력과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다.

프라이맥스

프라이맥스, 2021년 연매출 1,000억원 돌파



프라이맥스가 2021년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2020년 매출액 보다 약 300억원(약 43%)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코로나19 여파와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판매전략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와 대형 픽업트럭, 대형SUV의 판매정책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한성훈 대표는 2022년 사업계획 워크샵에서 “프라이맥스는 2011년 시작된 새로운 도전으로 현양과 신일정공을 합병, 2013년 지금의 프라이맥스로 사명을 변경 한 이후, 10년만에 매출 1,000억원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는 프라이맥스 임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썬테크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썬테크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해 가이드로드 제조라인의 생산실적 MES 자동수집, 가동율 분석, 부적합품 색출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전수선별 없이 바로 납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21년 9월에 시작하여 사전 현장점검, 사업계획 승인, 중간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최종점검 및 평가를 받고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국내 친환경 자동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에 대해서 알아보자

참고문헌기사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5가지 핵심 장점", 2020년 12월 2일, 현대모터그룹 TECH누리집 (<https://tech.hyundaimotorgroup.com/kr/>)

우리의 주요 고객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는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의 뼈대이자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시발점이다. 이 말은 곧 E-GMP에 기반한 전기차가 기존 전기차는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목적을 위해 E-GMP는 기존 전기차의 바탕이 된 내연기관 플랫폼과 설계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필요하지만 전기차에서 불필요해진 엔진과 구동 축을 제거하고 배터리와 모터를 더했다. 그리고 이런 차별화된 설계가 E-GMP만의 특화된 장점을 만들어낸다. 사용자에게 새로운 전기차 경험을 선사할 E-GMP의 장점 5가지를 알아보자.

1.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 가능

E-GMP는 도심과 장거리 주행 등 운전자의 성향과 차량 특성에 맞는 배터리 용량을 가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E-GMP의 PE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배터리 모듈을 1종으로 표준화해 각 차종별로 요구되는 주행거리에 맞게 배터리 팩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배터리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저

장하는 배터리 셀과, 배터리 셀을 일정량 모아 놓은 배터리 모듈, 그리고 배터리 모듈을 합친 배터리 팩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E-GMP는 배터리 셀과 모듈을 1종으로 표준화했다. 덕분에 향후 배터리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용자가 A/S를 받을 때, 배터리 전체가 아닌 모듈 단위로만 교체를 할 수 있어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품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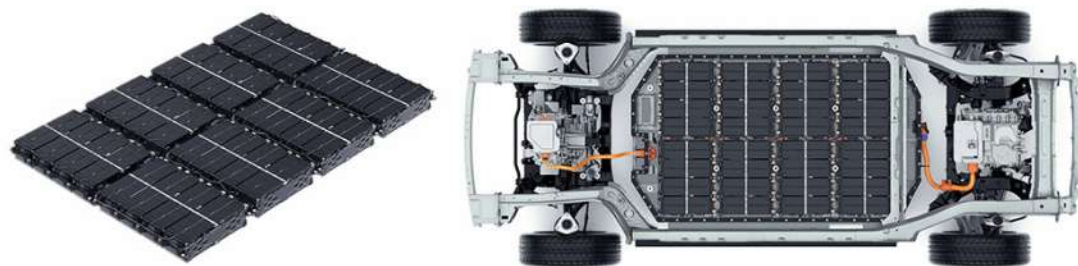


그림 1. E-GMP 배터리 및 형태

1 PE 시스템(Power Electric System) :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전기차의 구동 시스템. 구동용 모터와 감속기, 전력 변환을 위한 인버터, 동력원을 담고 있는 배터리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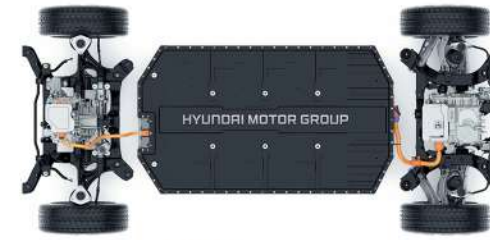


그림 2. E-GMP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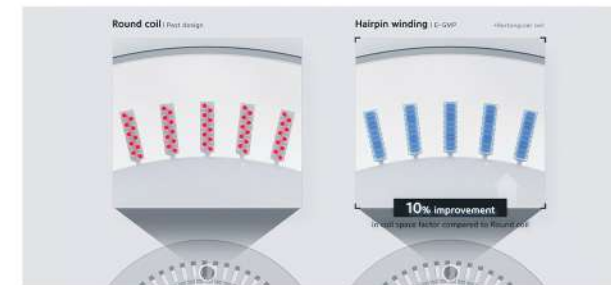


그림 3. 헤어핀 권선 기술 개요

그 외에도 E-GMP는 동일한 크기의 배터리 시스템을 얹은 기존 전기차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 향상돼 한층 효율적이고 가벼운 배터리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차급과 차종,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자유로운 배터리 모듈 구성을 통해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E-GMP에 기반한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넉넉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지닌 차세대 PE 시스템 덕분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구동 모터 내부의 코일에 적용된 '헤어핀 권선 기술'의

역할이 크다. 일반적으로 구동 모터는 영구자석이 있는 회전자, 코일이 감겨있는 고정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구동 모터의 동력은 고정자에서 발생하는 전자기력과 회전자 영구자석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는 회전토크에 기반한다. 여기서 고정자에 코일을 촘촘하게 감을수록 효율이 증가한다.

헤어핀 권선 기술은 말 그대로 헤어핀의 형상을 닮은, 직사각형의 단면을 가진 코일을 활용한 구조를 뜻한다. 단면이 사각형인 코일은 기존의 원형(환선) 코일 대비 고정자에 코일을 더 촘촘하게 감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권선 저항을 줄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밖에도 차세대 PE 시스템은 새로운 냉각 방식을 더해 모터의 효율을 높였다. 내연기관 등 모든 동력원이 그러한 것처럼 전기 모터 역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야 한다. 과열이 될 경우 모터를 구성하는 부품에 변형이 생기고, 이는 곧 모터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모터는 간접적으로 열을 식히는 수냉 방식을 썼다. 그러나 이 방식은 모터를 감싸는 하우징에만 냉각수가 흐르기 때문에 모터에서 가장 뜨거운 코일을 직접 냉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E-GMP는 모터·감속기 일체형 구조의 장점을 살려 유냉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감속기의 냉각 및 윤활 기능을 담당하는 오일을 EOP(Electric Oil Pump)로 모터 내부의 코일에 안개처럼 직접 분사해 열을 보다 효과적으로 식힐 수 있다.

2. 18분만에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

아직까지 국내외 대다수 고속 충전 인프라는 400V 충전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를 위한 50~150kW급 충전기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빠른 충전을 위해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를 위한 350kW급 초고속 충전 인프라가 설치되고 있는 추세다.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을 기본으로 적용했다. 초고속 충전기로 충전 시 18분만에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완충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단 5분의 충전으로도 약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 현재 널리 사용 중인 400V 충전 시스템이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E-GMP의 충전 편의성은 단순히 시간이 빠른 데서 그치지 않는다. E-GMP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는 800V 방식 외에도 아직까지 국내외 대다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쓰이는 400V 충전 방식을 동시에 지원한다.

현재 800V 방식을 지원하는 일부 전기차도 400V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의 제어기를 장착해야 한다. 반면, E-GMP는 별도의 제어기 없이도 800V와 400V 충전이 모두 가능한 멀티 충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이런 혁신이 가능한 것은 400V 충전기 사용 시 구동용 모터와 인버터를 활용해 400V 전압을 800V로 승압해 배터리에 공급하는 현대차그룹의 특허 기술 덕분이다.

E-GMP의 멀티충전 시스템



경쟁사의 멀티 충전 시스템



그림 4. E-GMP 충전 시스템

E-GMP의 V2L(Vehicle to Load) 기능



그림 5. E-GMP 통합 충전 시스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대용량 보조 배터리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E-GMP의 특징이다. 기존 전기차는 외부 전력을 차량 내부로 전달하는 단방향 충전만 가능했다. 그러나 E-GMP는 별도의 제어기나 연결 장치 없이도 110V나 220V 등의 일반 전원을 전기차 내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지원한다. 이 같은 기능은 2통합 충전 시스템(ICCU : Integrated Charging Control Unit)과 차량 충전 관리

시스템(VCMS : Vehicle Charg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구현 가능하다. E-GMP의 V2L 기능이 제공하는 최대 공급 전력은 주택용 계약 전력 3kW보다 많은 3.5kW다. 덕분에 E-GMP 기반의 전기차는 220V 완속 충전이나 캠핑장 등에서 가전용 전자제품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양방향 전력 사용이 가능하고, 비상 시에는 외부 전력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3. 전기차 전용 플랫폼만의 새로운 디자인과 넓은 실내

이런 구조적인 차이는 실내 공간의 구성도 바꾼다. 휠 베이스가 길어져 비슷한 크기의 기존 자동차보다 실내 공간이 훨씬 넉넉하다. 또한, 차체 하단을 지나가는 구동축이 없기 때문에 실내 바닥이 편평하다. 공간의 제약 없이 시트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 탑승자의 자동차 이용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도 E-GMP의 특징이다.

E-GMP만의 장점은 또 있다. 실내 대시보드 안에 있던 공조장치를 엔진이 사라진 공간으로 이동해 대시보드 부피를 줄여, 앞좌



그림 6. E-GMP 실내 공간

석 승객 공간을 확대했다. 이른바 '슬림 콕핏'의 구현을 통해 동급의 내연기관 플랫폼 기반 전기차보다 실내가 한층 넓고 쾌적해진다.

4. 저중심 설계와 전용 새시 기술로 완성한 E-GMP의 주행 성능

E-GMP 주행 성능 구성 요소



그림 7. E-GMP 주행 성능 구성 요소

E-GMP에는 차의 기본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까지 반영됐다. 가장 큰 요인은 앞서 언급한 차체 중앙에 위치하는 배터리다. 전기차에서 가장 무거운 배터리를 차체 중앙에 낮게 깔아 저중심 설계를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휠 베이스에 배터리가 놓여 차체 중심에 무게가 집중됐고, 이는 효과적인 앞뒤 무게 배분이

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 같은 설계로 E-GMP를 바탕으로 하는 전기차는 세단, SUV 등 차종에 관계없이 직진 가속 및 코너링, 승차감 등 전반적인 주행 품질이 우수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 개발한 서스펜션으로 주행 성능을 더욱 끌어올렸다.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링크를 5개 설치해 상하, 좌우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조종성을 높여주는 5링크 서스펜션을 후륜에 더했다. 또한, 5링크 서스펜션 구조물과 서브프레임(서스펜션의 골격이 되는 부분) 내부에 PE 시스템을 통합하는 모듈화를 통해 주행 성능 향상에 공을 들였다. E-GMP는 기능 통합형 드라이브 액슬(IDA, Integrated Drive Axle)을 세계 최초로 양산 적용했다. 기존에는 드라이브 샤프트와 휠 베어링을 마치 볼트와 너트처럼 연결해 엔진 또는 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로 전달했다. 그러나 IDA는 드라이브 샤프트와 휠 베어링을 일체화 했다. 2개 이상이던 부품이 하나로 통합되자 부품 사이에 연결 부위가 사라져 강성이 약 42% 높아졌고, 부품 수가 줄어 무게는 약 10% 줄었다. E-GMP에 기반한 전기차가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결이다.

5. 새로운 구조와 기술로 향상시킨 안전 성능

차체 중앙에 놓인 배터리와 PE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도 눈에 띈다. 우선적으로 측면 충돌 시 배터리 보호를 위해 사이드 실 내부에 알루미늄 압출재를 기본 적용했다. 또한, 바닥 안쪽에 횡방향 크로스 멤버를 핫스탬핑 부품과 동급의 재질 강도를 가진 초고장력 강판으로 제작해 적용했다.

E-GMP는 배터리와 차체를 더욱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해 배터리를 관통하는 8점 마운트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배터리 하단부터 바닥 안쪽까지 긴 볼트로 체결해 배터리와 차체 결합 강성을 극대화한다. 배터리와 차체 결합 강성을 높이면 충돌 시의 배터리 안전성도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주행 시 진동과 소음을 줄여 성능과 승차감 향상이라는 부가적인 장점도 생긴다.

E-GMP 안전 성능 구성 요소



그림 8. E-GMP 안전 성능 구성 요소

2 통합 충전 시스템(ICCU) : 차량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와 보조배터리 모두 충전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개발한 현대차그룹의 통합 충전 시스템. OBC(온보드차저)의 경우 기존 단방향으로만 충전 가능했던 기능을 개선해 양방향 전력 변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의 적용 유예

중대재해란?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예방 4대 위험 집중관리 사례

예방관리

교육·주의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인원/설비/물질/방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사고 위험수준을 최소화 하여야 함.

추락 중대 재해

-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지붕, 시설물 및 설비 상부, 고소작업대 등)
- 제거·대체** 설계·시공전 추락위험 최소화, 안전작업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장소 및 작업 최소화
- 통제관리** 공학적 : 추락방지 안전난간, 덮개, 방호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
관리적 : 작업전 관리감독자의 추락 방호시설의 점검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작업 관리
- 보호구 착용**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등 추락위험 작업시 보호구 착용

끼임 중대 재해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동력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전 공정 동력기계 및 원재료 등의 중량물)
- 제거·대체** 끼임 위험이 없는 구조로 개선(작업 방법 및 동선 고려)
- 통제관리** 공학적 :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 덮개 설치
관리적 :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실시, 위험기계기구의 정비 수리시 전원차단 관리, 접근 금지 조치
- 보호구 착용** 개인보호구 안전모 착용 및 동력기계 말림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화재·폭발 중대 재해

- 위험요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공정 또는 작업(가연성 가스사용 열처리공정)
- 제거·대체** 화기작업시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주변 가연물 제거 및 비 가연성 자재로 대체사용
- 통제관리** 공학적 :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 및 차단장치 설치, 용접 등의 화기작업시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또는 방화포 설치
관리적 :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 화기작업 금지 및 위험물 현황파악 및 주기적 농도 측정 및 화재감시자 배치
- 개인보호구** 제전작업복 착용, 방폭공구 사용, 가스 검지기 휴대

질식 중대 재해

- 위험요인**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탱크 및 지하 피트내)
- 제거·대체** 설계단계부터 밀폐공간이 없도록 반영, 밀폐공간에 작업자가 진입할 필요 없는 구조로 개선
- 통제관리** 공학적 : 환기·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관리적 : 출입금지 조치,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및 감시인 배치
- 개인보호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착용



(주)구봉에스테크·구봉정공 김준호 대표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부품… 품질관리에 최선, 크롬도금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기업 될 것”

45년을 지나 50년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나온 길이 그렇다. 나아갈 길은 어디까지일지 모른다. 묵묵히 갈 길을 가겠다는 마음뿐이다. 다만, 옆에는 남다른 유대관계와 끈끈함으로 뭉쳐 있는 직원들이 함께한다. 목표도 뚜렷하다. ‘태양금속처럼’, 한 분야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기업이 되고 싶다.

지난 1976년 구봉도금공업사 창립 후, 김명석 초대 회장에 이어 ‘2세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김준호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회사는 태양금속공업에 차량 브레이크 캘리퍼용 피스톤을 공급하고 있다. 태양금속으로부터 가공된 소재를 공급받아 연마, 경질 크롬도금, 폴리싱, 세척, 검사 등의 공정을 진행한다. 특히 브레이크 부품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높은 품질수준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도금 두께와 조도, 경도, 내식성, 내마모성 등의 까다로운 품질 항목을 충족시켜야 합격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제품 소개에 대한 김준호 대표의 답

이다. 그리 길지 않은 문장 속에 구봉에스테크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다. ‘도금’이라는 단어 속에 과거(역사)가 보인다면, 피스톤은 현재를 이끌어가는 힘이고, 그 미래는 ‘품질관리’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구봉에스테크·구봉정공은 1976년 구봉도금공업사로 창립하여 45년 동안 자체 표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에서 소형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제철, 제지, 화학, 필름) 롤러(Roller) 제작 및 자동차용 브레이크 피스톤(Brake Piston)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피스톤 분야인 에스테크에는 34명의 직원이, 산업용 롤러 분야인 정공에는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백 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김 대표는 “직원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이고 전 직원이 하나의 팀이 되어 열린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할 때 최선의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 덧붙였다. 아침마다 전 직원이 모여 다 함께 체조를 하고 파이팅을 외치는 것도 바로 이런 팀워크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장 직원들의 연세가 60대로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자동화 도입이 어려운 공정들도 많다.

특히 젊은 친구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풀기 쉽지 않은 숙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직원의 행복이 곧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직원의 복지에 대해 더 신경 쓰겠다”는 다짐과 함께 “기술을 배울 젊은 인재들이 함께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갈수록 강화되는 안전관리와 점점 심해지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의 안전교육 강화와 건강관리 더불어 지역 환경개선에 도 적극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인연은 15여 년전인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 델파이(현 이레AMS)에 캘리퍼 피스톤을 전량 공급하고 있던

구봉에 태양금속이 “피스톤 소재 외의 모든 공정(CNC 가공, 연마, 도금)을 해줄 것”을 제의했고, 회사가 15년 협력관계 이후 2012년에 SQ인증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도와 모비스에 피스톤을 공급하게 됐다.

“지난 2020년 5월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며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앞으로 크롬도금 분야에서 독보적인 표면처리 전문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태양금속처럼, 한 분야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탁월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기업이 되겠다.” 2세 경영의 무거움을 표현하는 김준호 대표의 말이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15년 협력관계’ 태양금속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태양금속의 협력사를 향한 품질 향상 열정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태양금속이 자동차 시장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되어 협력사들과 함께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글로벌 대표 냉간 단조 전문기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글 _ 한강희

▽ 태양금속에 납품하는 ‘피스톤’





김민철

입사일 : 2021.12.7 **부서** : 품질경영팀
취미 : 카페탐방 **특기** : 맛집탐방 **장점** : 친화력이 좋습니다.
각오 : 초심을 잃지 않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송미연

입사일 : 2021.12.20 **부서** : 품질보증2팀
취미 : 자전거 **특기** : 스쿠버다이빙 **장점** : 긍정적인 마인드
각오 : 동료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고 능동적인 인재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입사일 : 2021.12.23 **부서** : 조향설계팀
취미 : 풋살 **특기** : 요리 **장점** : 긍정적인 사고
각오 :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거듭나겠습니다.



이현택

입사일 : 2021.12.27 **부서** : 개발1팀
취미/특기 : 요리 **장점** : 긍정적인 마인드
각오 :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태양 금속공업



김현승

입사일 : 2021.1.3
부서 : 생산3팀
취미/특기 : 운동
장점 : 끈기가 있고 성실합니다.
각오 : 업무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노정래

입사일 : 2021.1.3
부서 : 품질보증1팀
취미 : 스포츠경기 관람
특기 : 퍼즐
장점 : 경청과 공감을 잘하고, 단체에 적응이 빠름
각오 :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희용

입사일 : 2021.1.4
부서 : 생산3팀
취미 : 운동
특기 : 게임
장점 : 활발합니다!
각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훈

입사일 : 2021.1.4
부서 : 품질경영팀
취미 : 사진촬영
특기 : 축구
장점 : 긍정적인 사고와 활발한 성격
각오 : 도움이 될 수 있는 태양금속공업(주)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손동규

입사일 : 2021.1.20
부서 : 소재연구팀
취미 : 런닝
특기 : 요리
장점 :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
각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동료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채호

입사일 : 2021.1.25
부서 : 개발2팀
취미 : 드라이브
특기 : 축구
장점 : 누구와도 어울리는 성격
각오 : 빠르게 조직에 녹아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춘의 꿈이여~
계속되라!!



새로이 태양가족이 되신 신입사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회사와 국가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양어깨를 응원합니다.
승진과 전보로 더욱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신 사우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세요.

입 사

태양금속공업(주)

12월 7일	김민철	사원	품질경영팀
12월 30일	송미연	주임	품질보증2팀
12월 23일	김영수	사원	조향설계팀
12월 27일	이현택	사원	개발1팀
1월 3일	김현승	사원	생산3팀
	노정래	사원	품질보증1팀
1월 4일	이희용	사원	생산3팀
	박노훈	사원	품질경영팀
1월 20일	손동규	사원	소재연구팀
1월 25일	임채호	사원	개발2팀

인 사 발령

태양금속공업(주)

12월 27일	과장대리	김태균	품질보증2팀 → 센터기법인 주재원
	사원	최종분	생산5팀(제품관리) → 생산3팀(교정)
	사원	이미화	생산5팀(제품관리) → 생산3팀(교정)
1월 10일	차장	조정민	설계팀장 직무대행
	주임	이준섭	개발2팀 → 설계팀
2월 4일	주임	권준우	설계팀 → 개발2팀
2월 7일	부장	송수호	영업1팀 울산영업소장 → 영업관리팀장
	차장	김성수	영업관리팀장 → 영업관리팀(물류)
	차장	이정하	영업1팀 울산영업소장



* 본 사보는 태양금속공업(주) 홈페이지 <www.taeyangmetal.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주의”

태양금속은 변치 않는 믿음과 한결 같은 사랑으로
함께 걸어온 가족애가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 그리고 직원 가족 모두가 한 가족”
이라는 생각으로 68년 이상을 걸어온 기업정신이 있습니다.
환한 미래를 열어갈 신뢰와 창조의 정신으로 百年大計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www.taeyangmetal.com